Jaya Masiha! 예수님 찬양 !

May 24, 2026 Vol. 39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항상 여름인 나라, 말레이시아에서 각자 계신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주님을 따르고 섬기시는 동역자 여러분에게 안부를 전합니다.

○ 훈련원 생활

1 월에 시작된 훈련을 마치고 , 3 월부터 다른 훈련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훈련 기간 동안 모든 스탭들이 비상대기 모드로 바짝 긴장하며 보냅니다. 훈련이 시작되기 전에 모든 준비를 한다곤 하는데 훈련원 건물이 오래되어서 생각치도 않은 고장이 발생하고 수리에 드는 시간이 훈련에 지장을 줄까해서 노심초사할때가 많습니다. 1 월 미주 훈련생 12 명이 한달간 합숙하면서 매일 아침 경건회를 돌아가면서 인도하고 오전에 강의를 듣고 오후엔 선교에 관한 책을 읽고 PPT 로 발표하면서 이들의 시선과 사고의 틀이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훈련의 일환으로 돌아가면서 식사 준비하면서 공동체와 팀의 중요성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주말에 난민학교를 방문하여 학생들에게 미술과 음악으로 봉사를 하면서 멀게만 느껴지는 난민의 실상과 어려움도 알게 됩니다. 주말엔 무슬림 모스크와 힌두 사원과 중국 사원등을 방문하면서 다른 종교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이들 종교를 믿는 사람에 대한 안타까움도 가지게 됩니다. 말레이시아에서 무슬림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불법이어서 직접전도는 하지 못하지만 새벽마다 들리는 아잔소리가 아침을 깨우고 무슬림에 대한 관심은 증폭되고 이해가 넓어지게 됩니다. 주일에는 매우 진지하고 열성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중국계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며 우리의 예배와 다른 색다른 예배를 경험하면서 앞으로 마주할 선교지의 예배를 준비합니다. 이번 훈련에서 한 훈련생은 선교를 단순하게 생각하였는데, 고려하고 준비해야 할 것들이 너무 많아서 괜히 훈련을 시작했다고 투정(?)도 부렸습니다. 훈련을 시작할때만 해도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보였는데 수료식때보니 든든한 주님의 군사로 구비되어서 감사했습니다. 훈련을 마친 동기 훈련생들이 앞으로

마주할 선교지에서의 어려움과 기쁨을 나눌 새로운 친구와 형과 동생을 얻는 것은 훈련의 보너스(?)입니다.

○ 저의 일상

하루 일과는 순서에 따라 경건회를 인도하고 오전 강의를 하는데 저는 동행이란 주제로 강의를 합니다. 그 외 훈련시간엔 강의에 참석하거나 훈련 행정일을 합니다. 훈련 사역을 하면서 선교의 다양한 분야를 접하다 보니 네팔에선 느끼지 못했던 부분에서 부족함을 느끼며 동시에 팀사역의 중요성을 깨달으며 이를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에스더가 방학을 맞아서 아내가 당분간 말레이시아에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훈련원 사역을 도울 수 없는 환경이어서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늘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에스더의 권유로 이곳에서 7월초까지 지내게 되었습니다. 아내의 합류로 훈련원도 활기를 띠고 있고 아내의 합류 소식을 접한 저희를 사랑하는 선교사들이 특히 아내를 사랑하는 (?) 분들이 멀리서 저희를 방문하여 아내가 큰 위로와 격려을 받는 기쁨의 시간도 가졌습니다.

○ 네팔 청년들

훈련원 사역을 하면서도 마음을 짓누르는 것은 예수님을 모르는 네팔 사람들입니다. 저희가 교제하는 네팔 사람들은 주일만 쉬는데 주일도 자신들의 밀린 일상을 하는라 때론 오버타임을 하느라 만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들을 만나려고 예배를 토요일에 드리고 주일을 비워두는데 주일 아침에 갑자기 일이 생겨서 만날 수 없다는 전화를 받으면 마음에 낙심이 가득하게 되는데 주님께서 이들에게 마음의 문을 열어 주시기를 기도할 뿐입니다. 또한 슈퍼마켓을 가던지 큰 건물에 가면 늘 근무하는 네팔 시큐리티 가드들을 보고 이야기를 나누는데 이들은 휴일없이 일하니 개인적으로 만나 깊은 이야기를 할 시간이 없어서 참 안타깝지만

대화중에 복음을 전할 기회를 늘 모색하며 지냅니다.

○ 자녀들

딸 에스더는 교사 자격증 취득을 위해 2 semester 를 마쳤습니다. 매주 3 일을 학교로 출근하여 실습을 하고 저녁에는 온라인으로 수업을 듣고 2 명의 자녀를 홈스쿨링을 하고 있습니다. 8 월에 시작하는 마지막 Semester 를 12 월에 마치면 교사 자격증을 취득하여 Homeschool Specialist 가 되려고 합니다. 때때로 남편의 빈자리에 마음이 무너질때도 있지만 세 아이의 엄마로 잘 지내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출석하는 교회의 Cell Group 에서 많은 위안과 격려를 받고 있으며 교회의 재정적 지원도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있습니다.

아들 죠쉬아가 사랑하는 배우자를 만나서 3 월에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아들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 있었지만 그 어려운 시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늘 함께 동행해 주셔서 이같이 아름다운 가정을 꾸리게 되었습니다. 새로 출석하는 교회 목사님께서 주례를 서주시고, 하객들의 축하와 축복을 받는 아름다운 결혼식이어서 저희의 마음에 기쁨과 감사의 눈물이 넘쳤습니다. 이들 부부가 어린 시절 가졌던 신앙이 회복되고 다시 주님께 re-commit 하며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결혼의 원리를 따라 아름다운 결혼 생활이 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기도제목]

1. 선교사 후보생들이 "하나님의 선교(Missio Dei)"의 관점으로 온전히 무장되게 하소서
2. 네팔에 뿌려진 복음의 씨앗들이 열매를 맺게 하시고, 이곳에 거주하는 네팔 디아스포라에게 복음의 통로를 열어주소서
3. 딸 가족(에스더, 캘빈, 에이튼, 올리)의 앞길을 인도하여 주소서
4. 주께서 주신 소명을 끝까지 따르게 하소서.

최동욱, 최향숙 선교사 드림